



綠담笑담

〈녹색상품을 만나다: 물 기반으로 한 점착제 종이테이프〉

#녹담 #녹색소비#녹색구매
#친환경제품#지속가능한소비

김지영
GCN녹색소비자연대 녹담소담 큐레이터

현관 앞 택배, 익숙한 테이프의 불편함을 돌아보다

‘딩동’ ‘택배 왔어요’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가 오면 상자 포장에 붙인 테이프를 떼며 접착제 냄새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분리배출과정에서 테이프를 떼어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이중과정의 번거로움을 늘 겪어왔다. 흔히 물류에 사용되는 OPP테이프인데, 플라스틱 성분이라 100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장에 태웠다.

소비자인 나는 현재 유통 중인 종이테이프가 그나마 기존 투명한 테이프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라 생각해 아이들과 교육과정에서나 집에서 사용할 때 이용해 왔다. 그러나 녹색상품 선정과정에서 테이프의 점착 부분 성분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톨루엔이나 벤젠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사용해 본 종이테이프는 냄새가 없고, 유해성분이 없다는 점이 좋다.



녹색상품에서 만난 새로운 종이테이프의 가능성

녹색구매네트워크(GPN)의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만난 종이테이프는 순수종이 이형층으로 폴리에틸렌을 제거했다고 한다. 기존 유기용제 점착제와 다르게 물(H2O)을 기반으로 대체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유해성도 막아주고, 오염방출도 0%라 했다. 점착제 성분을 물로 했다는 점이 참 놀라웠다. 이 기술력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녹색의 길을 상상해 본다. 친환경 패키징 세상을 열어가는 데 좋은 제품으로 판단된다.



2024 '올해의 녹색상품' 큐테이프

기업과 학교, 소비자의 일상에서 넓어질 녹색 전환

대형 물류업체에서 포장할 때 구매해 사용하고, 조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개별 소비자도 이 종이테이프를 만나면 분리배출할 때 플라스틱테이프를 떼지 않고, 종이테이프 부착된 박스를 펴서 그대로 상자코너에 내놓을 수 있어 좋다. 배출과정의 수고로움을 줄여주고, 녹색상품을 만날 수 있는 행복감까지 얻게 된다. 기업의 녹색상품에 대한 연구와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소비의 끝에 남는 쓰레기, 이제는 녹색구매가 답이다

어느새 소비자들의 물건 구매행위가 쓰레기를 배출해 내는 쓰레기생산자로 전락시켰다. 그 많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접착하며 여러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생필품이나 먹거리 제품을 사는 행위가 지구에 해를 끼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뭐 하나 편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 지속불가능성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녹색소비, 녹색구매의 장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

기업은 무조건 생산량을 늘리는게 경제성장이 아니며,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게 경제를 잘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었다. 이제 사회는 녹색상품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자원의 순환망이 잘 만들어지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다.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

“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
betterness consumption,
betterness world

”

綠담笑담